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어떤 바람도 마음 못 무너뜨려 '금강'

15면에서 계속

진리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마음뿌리도 똑같고
다 평등해서
모두 깨우쳐도
'一佛'입니다



그림 · 최주현

다. 그러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만 배출해 주면 바뀌는 술술 그냥 걸림없이 돌아가게끔 돼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슬그머니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생깁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화배우가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배역을 맡아가고, 영화배우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막이 내리면 그뿐입니다. 어떻게 역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또 자기의 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들어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태산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만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음입니다. 보살의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하는 그 도리를 똑똑하게 배우시고 당신 몸이 나무라고 한다면, 당신 뿌리를 진짜로 믿으세요. 타외에 아무리 '부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 공덕이 안되는 겁니다. 자기 뿌리를 믿는 것만이 공덕이 되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문 저는 한때 사업을 하면서 크게 부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인공 찾을 생각도 못하고 이리저리 뛰다가 나중에야 주인공에 맡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주인공의 힘이 있는지 큰 것은 그럭저럭 막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아직도 관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꿈을 꾸는 일들이 많죠. 어린애를 업고 다닌다든지 아버지가 보인다든지 어머니가 보인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러나 항상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 내 안에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이는 건 옷보시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보이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에 보이는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이고, 이 꿈을 잘못 꿰서 큰일났구나, 잘못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꿈이 언짢을 듯하면 '주인공, 잘 돌리는 것도 나야 하고 맡기세요. 또 좋을 듯하면 감사하게 놓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보배에 그 기구를 가지고 운전대만 쥐고 있는 겁니다. 운전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가기도 하고 걸려서 못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생시나 영화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렇게 맡도 할 수 있고 도깨비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철 나는데 뭐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이 한 철 나는 동안에 공부하기에 따라서 세세생생에 구멍이 빠지느냐 구멍이어서 나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은 내 입을 빌려서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으니 난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을 낳으셨다' 하는 건 꿈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보살로 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내는대로 조건이야 어디로 갔는지 무조건 내가 마음내는 대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또 보살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꼈다 하면 약사보살이 돼주고, 좋은 데로 못갔다고 원을 세우면 지장이 돼주고, 명이 짧다 하면 칠성이 돼주고, 물에 가서 영원을 하면 주해신이 되고 말입니다. 산에 가면 또 주산신이 있고,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의 이름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축도 아미타도 미륵도 동방에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서방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아미타라고 하고 돌아오는 것은 미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가정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속을 썩으면 속을 썩이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속을 썩는 거지 모습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병난 건 다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너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지.' 하고 거기다 관한다면 그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허허, 내가 이래서는 안되지.' 하고 스스로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어지럽지 않게 되겠죠.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두 기복으로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때문에 지금 자기 뿌려놓은 씨들도 마음은 그냥 바깥으로 놓지요. 정신세계는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물질적으로만 치달는 거예요.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 열심히 자기 뿌리를 믿고 관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배역 받아 영화배우처럼 사는 한철 인생

그래서 이듬해 '금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이 마음만은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라도 생명이라면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니 어떤 미물이나 짐승을 보더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모습이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요, 사람이 이 줄을 쥐지 않고 간다면, 이 선근의 뿌리를 쥐고 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간다면, 죽어도 보살이 인도를 해주지 않아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의식만 알고 짝짓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온다

면, 그 모습에서 습성이 생겨 다시는 사람으로 나오기가 극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훌렁 벗고 자유권을 얻는다면 이 우주를 할나에, 빛보다 더 빨리 한 할나에 보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도'라고는 안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다 합쳐서 오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는 아닙니다. 그 오신통을 벗어나야 '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기출산으로 미숙아 태어나

문 큰스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집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아직 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출산으로 인해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산소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뇌를 다쳤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런 차도가 없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보배에서 이 태양이 바늘처럼 나가듯이, 어떠한 거든 지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 그 자리에 모든 걸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고 관하면 아이 뿌리나 맥의 뿌리나 둘이 아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맥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근본이요. 아프면 의사가 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살의 응신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처님

겁니다. 말하자면 직계 내 조상은 과거에 살던 나이고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주인공에서 그 환상을 내취하 아버지인 줄 알고 믿게 되니까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 아버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생물에서 부모가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형성돼 왔는데, 내 부모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버지가 어디 있고, 내 형제 아버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조그맣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바다를 이룰

협찬 주인공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불교의 마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변형 241쪽 / 값 5500원

20C의 정조자, '환상 문학의 장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술탄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생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86 변형 178쪽 /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상제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머니속 대장경 6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중서 지음
86 변형 182쪽 /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실명',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이랄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